순천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시작

혼자 병원 이용 어려운 노인 대상
자원봉사 동행매니저 진료 보조
진료 1주일전까지 예약 신청해야

순천시가 지난 14일 어르신 병원 동행 매니저 34명에 대한 교육 및 위촉식을 가졌다.

"순천서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 동행매니저 불러주세요"

순천시가 지난 19일부터 맞춤형 돌봄지원 사업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홀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매니저인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어르신의 진료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어르신 돌봄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타지역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차별화된 순천시만의 특화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19일부터 시작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최소 진료 1주일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단 장기요양등급자 및 보훈재가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신숙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했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순천시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차 교육을 수료한 34명을 동행매니저로 위촉했으며, 5월 중 2차 교육을 통해 10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생명존중안심마을' 3곳 조성

자살예방 환경 조성 등 안전망 구축

구례군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복지·교육·지역사회·공공기관 등 5개 분야, 22개 기관(단체)과 함께 구례읍·문척면·광의면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은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가지 활동 중 2가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실천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례군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자살 위험이 높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자살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연대와 돌봄이 가장 강력한 예방 수단"이라며 "이번 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실천 범위를 넓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는109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전국 최초 '귀농귀촌·외국인 통합교육 플랫폼' 구축

법무부 사회통합 지역학습관에
다양한 교육 통해 정착 지원

고흥군의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돼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인구유입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생활정보, 사회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착지원 제도다. 고흥군은 이 프로그램을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인구 유입 교육체계를 마련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총 7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고흥군에는 누적 1만919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었고, 고흥군이 '전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지역학습관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인구 회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다양한 이민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흥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과 시설이 없어 장기 비자 전환 및 이민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역학습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 비자 인력 유치 ▲근로자 가족 초청 ▲이민자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시행

2년간 연 3% 이자 보전

보성군은 경기 침체와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 12일부터 '2025년 보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보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연 최대 90만 원, 2년간 총 180만 원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3,000만 원, 금리는 연 5.5%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보성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증서 발급 후에는 군에서 발급한 추천서를 지참해, 보성군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보성지점, ▲NH농협은행 보성군지부, ▲지역 농·축협, ▲보성신협, ▲벌교신협, ▲조성신협, ▲보성새마을금고, ▲벌교새마을금고 ▲,보성군산림조합, ▲고흥군수협(회천지점, 벌교지점) 등 총 15개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 도독마을 방파제, 150m 벽화 탄생

왜군과 전투 모습 생생히 재현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의 방파제가 벽화로 재탄생했다. 〈사진〉

도독마을은 정유재란 당시 명나라 수군을 이끌고 조선수군과 함께 왜군에 맞서 싸운 진린 도독장군이 진을 친 곳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전의 배경이 되었던 이 마을 방파제가 벽화로 변신한 것. 마을 이름도 '도독'이라는 진린의 직함에서 비롯됐다.

묘도동은 이같은 도독마을의 유래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근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지와 연계해 관광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지난 4월부터 벽화작업을 기획했다. 마을 주민들도 단순 색칠을 돕는 등 힘을 보탰다. 150여m에 이르는 벽화는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이 연합해서 왜군과 싸우는 모습이 생생히 묘사됐다. 거북선과 판옥선, 조선과 명나라 연합수군의 항전 장면이 벽면에 가득하다.

동은 이번 벽화가 볼거리 제공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로 묘도동장은 "이순신 장군과 진린 도독의 발자취가 깃든 도독마을의 역사와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고 싶었다"며, "이번 벽화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다음달 1일까지 출생장려 표어 공모전

광양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광양시 출생장려 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응모 기간은 6월 1일까지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형식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30자 이내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응모 기간 내 네이버 폼(https://naver.me/G28WDUdc)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chaso97@korea.kr)로 표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광양시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아 진행하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30만 원, 장려상 1명에게는 20만 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선정된 표어는 시의 각종 홍보물, 현수막, 인쇄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Farm 나누어드림
자원봉사자 모집

Farm 나누어드림 이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고 수확한 농산물 일부를 기부받아 전남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신선식품 제공 및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모집대상
- 농촌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 (대학교, 기업, 지역주민 등)
- 동아리 및 대학생 등 (7명 이상)

활동순서
농가 및 봉사자 신청 → 매칭 및 일정 조율 → 봉사활동 실시 (활동 전 교육 및 안내사항 전달) → 수확물품 기부

참여혜택
- 활동물품 (장갑, 수건 등) 지원
- 자원봉사 활동 시 식사 및 간식제공
- VMS를 통한 봉사활동 시간관리
- 자원봉사활동 상해보험 가입

신청문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T. 061-283-8477

화원농협 이맑은김치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 전남광역푸드뱅크